

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우리울산

2026년 여름호 Vol. 20



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우리울산

2026년 여름호 Vol. 20

발행인

울산광역시

제작부서

공보담당관

편집위원

울산광역시 우지형

울산광역시 박하얀

발행처

울산광역시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간등록번호

ISSN 2982 - 7310



오디오북



e-Book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촬영하시면
더 편리하게 '우리울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ver



장생포고래문화마을에서 보이는 울산대교





26

기획특집

02
자연과 쉼이 있는 도시
울산의 매력 만점
공공캠핑장

울산산책

16
고래를 추억하며
장생포의 오늘을 걷다

요즘울산

26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누구도 멈춰 서지 않는 여행

시장사람들

34
기차는 떠나고 새벽은 남았다
구역전시장

울산의발견

40
울산의 비밀정원
회야강 생태습지

44
톡톡뉴스

47
우리울산과 함께해요

48
독자마당 | 울산사랑퀴즈



34



42

자연과 쉼이 있는 도시 울산의 매력 만점 공공캠핑장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푸른 자연 속 진정한 휴식을 꿈꾸고 있다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다. 울산은 산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과 계곡을 모두 품은 명품 공공캠핑장의 천국이다. 쾌적한 시설은 물론, 저렴한 이용료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캠퍼들을 설레게 하는 울산의 대표 공공캠핑장들을 구·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산바람, 물소리와 동화되다

울주의 캠핑장

영남알프스의 정기를 한 몸에 받는 울주군은 캠핑의 성지이다. 신불산군립공원의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작괘천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여기에 바다와 송림이 우거진 진하 해변, 숲 내음 가득한 대운산에도 캠핑장이 있다.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아영장

진하 해변의 자연 송림 속에 오토캠핑과 프리캠핑 사이트, 행사마당과 산책로를 갖춘 체류형 관광체험시설이다. 덩기요트·윈드서핑·SUP·카약 같은 해양레저 체험을 캠핑과 함께 즐길 수 있고, 간절곶·진하 해수욕장·웅기마을 민속박물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도 강점이다.

주소: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560 전화: 052)239-4700





작천정 별빛 & 달빛야영장

신불산군립공원 한복판, 작괘천의 맑은 물소리를 곁에 두고 잠드는 야영장이다. '별빛'은 야영테크 58면과 캐빈하우스를 갖춰 텐트 없이도 숲속 하룻밤이 가능하고, '달빛'은 오토캠핑장과 야영테크를 함께 운영해 차박과 텐트 취향에 맞춰 고르기 좋다.

작천정별빛야영장 울주군 상북면 자수정로 320 052)229-9601

작천정달빛야영장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230-2 052)229-9604





등억알프스야영장

영남알프스 자락에서 오토캠핑과 카라반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야영장이다. '화합존', '힐링존', '감성존' 세 구역으로 나뉘어 캠핑 스타일에 맞는 분위기를 고를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인기인 '곤충 카라반'은 이곳만의 차별 포인트다.

주소: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62 전화: 052)229-9607

대운산 하늘숲야영장

훼손되지 않은 대운산 자락의 자연을 고스란히 품은 신설 오토캠핑장이다. 화장실·샤워실·세척장·분리수거장이 편의동 한 곳에 모여 동선이 짧고, 사이트 사이로 계곡 접근로가 있어 여름 물놀이도 가능하다. 바로 위 대운산 등산로와 울산 12경 내원암, 바로 앞 수목원이 연계돼 야영과 자연 탐방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주소: 온양읍 운화리 산155-3 전화: 052)229-9610

도심 속 파라다이스, 숲을 품다

중구의 캠핑장

멀리 나가는 부담스럽지만 여름의 짙은 숲내음이 그립다면, 중구의 도심 속 캠핑장이 정답이다.

입화산 제2오토·황방산 생태·태화연 세 곳을 하나의 통합 예약 시스템(camping.junggu.ulsan.kr)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황방산 생태야영장

평탄한 지형에 자리한 아담한 규모의 야영장으로, 이용객이 북적이지 않아 ‘가족 별장’처럼 조용히 즐길 수 있다. 야영시설 중앙의 넓은 잔디광장에서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고, 울산 공공캠핑장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특화 야영장이다. 장비가 없어도 카라반으로 손쉽게 야영을 체험할 수 있다.

주소: 중구 주연길 52 (장현동) 전화: 052)708-2833





입화산 제2오토야영장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숲속 캠핑 특화 야영장. 중앙에는 잔디 마당이 있어 아이들이 뛰놀기 좋고, 야영장에서 입화산 정상까지 가벼운 산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야영장 인근에 '시와 노래가 있는 길', '치유의 길', '숲속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있어 캠핑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주소: 중구 길촌길 331-1 (다운동) 전화: 052)211-2832

바다 전망, 이곳에선 ‘기본’

북구와 동구 캠핑장

울산의 바다를 빼놓고 캠핑을 논할 수 없다. 탁 트인 바다 뷰는 기본, 이색적인 해상 캠핑까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대왕암공원 캠핑장

바다바람이 감싸는 해안 언덕에 자리한 동구의 대표 캠핑장이다. 오토캠핑 36면과 카라반 19면, 총 55면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대왕암·울기등대·슬도·소리박물관 등 동구의 주요 여행지가 도보권에 모여 있어 야영과 탐방을 한 번에 즐기기가 좋다.

주소: 동구 등대로 80-61 전화: 052)209-4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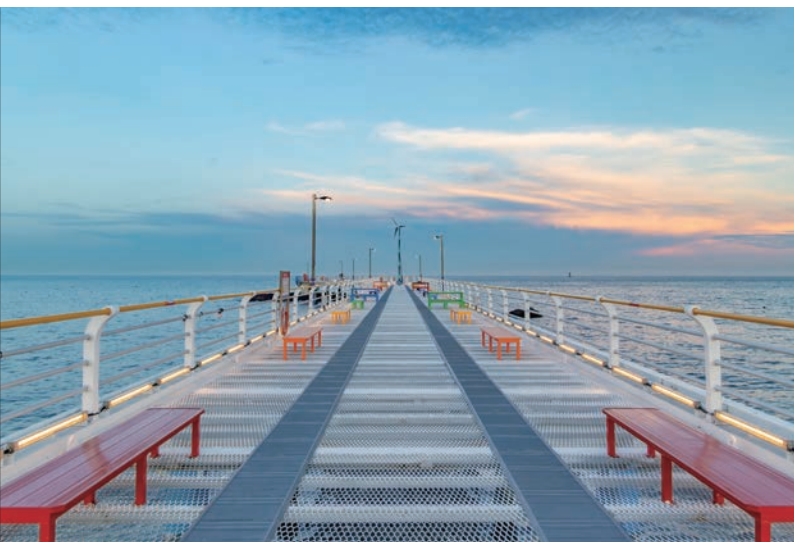


강동 오토캠핑장

오토 19면과 필로티 6면 전 사이트에서 바다 뷰를 누릴 수 있는 해안 야영장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다 생물 모양의 외관은 그 자체로 훌륭한 포토존이 된다. 독채 펜션 못지않게 넓고 쾌적한 내부 시설은 캠핑의 낭만과 집 같은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주소: 북구 당사동 87번지 전화: 052)291-3663





당사현대차 오션캠프

바다 옆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캠핑하는 이색 체험이 가능한 해상 테크 야영장이다. 복층형 테크를 포함해 총 20면이 조성돼 있어, 파도 소리를 BGM 삼아 잠드는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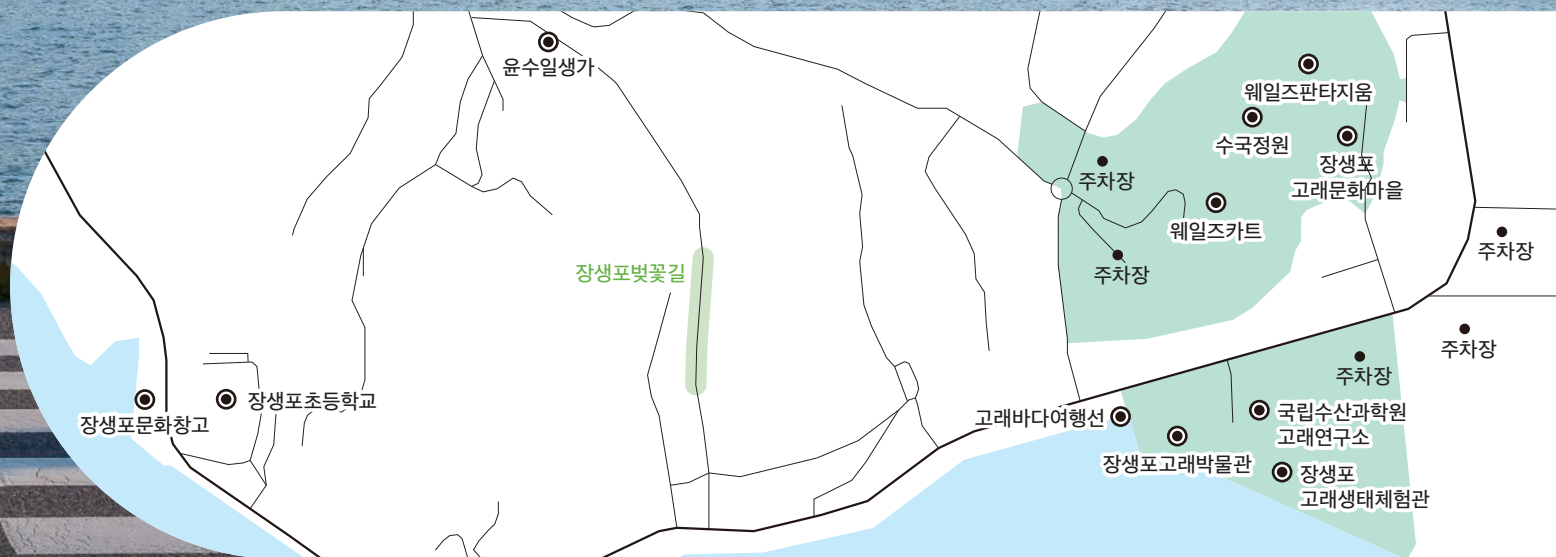
근처의 당사해양낚시공원에서 월척의 손맛을 느껴보자.

주소: 북구 당사동 378-4번지 번호: 052)291-0805



고래를 추억하며, 장생포의 오늘을 걷다

포구의 아침은 언제나 비릿하면서도 활기찼다. 수십 년 전, 거대한 고래가 포구로 들어오는 날이면 장생포는 온 동네가 들썩이는 잔칫집이 되곤 했다. 고래는 떠났지만, 장생포는 고래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련한 그리움을 단단한 디딤돌 삼아 바다와 문화, 짜릿한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멋지게 변신했다. 과거의 향수와 미래의 설렘이 교차하는 고래마을 장생포를 직접 걸어 보았다.



17



1



2



3



4



5

1. 장생포초등학교 전경. 2. 장생포문화창고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이 진행된다.
3. 바다와 책, 커피를 함께 즐길수 있는 장생포문화창고 6층의 장생포 지관서가.
4. 5. 정겨운 장생포의 골목 풍경.

예술로 승화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화창고 안에는 울산공업센터기념관이 들어서 있고, 건너편 SK에너지 유류저장창고는 주말 저녁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로 변신해 장생포의 특별한 밤을 선사한다.

문화창고의 감동을 안고 장생포치안센터 주변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1970~80년대 한국 가요계를 뒤흔든 가수

윤수일의 생가와 마주친다. 생가로 가는 길 한가운데에는 그의 사진과 악기로 외벽을 꾸민 '아파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생포의 이국적인 바다를 바라보며 자란 소년이 먼 훗날 '황홀한 고백'과 '아파트'를 부르는 국민 가수가 되기까지, 그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푸른 바다가 생가 골목 지척에서 잔잔히 빛난다.

푸른 바다, 고래와의 눈부신 마주침

다시 골목을 빠져나오면 탁 트인 장생포 앞바다가 온몸으로 안겨 온다. 조금만 걷다 보면 국내 유일의 고래 테마 공간인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래와 인간이 함께 써 내려온 역사의 기록관이다. 거대한 고래 골격을 지나 수중 터널로 들어서면, 머리 위를 유영하는 돌고래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바닷바람을 따라 조금 더 걸으면, 우리 영해를 지키다 퇴역한 군함 울산함이 위용을 드러낸다. 함정에 올라 조타실과 갑판을 거닐며 내려다보는 장생포항은 더없이 평화롭다. 이제 장생포의 하늘길을 달릴 차례다. 레일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고래 모노레일에 몸을 실으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장생포항과 고래문화마을의 푸른 숲이 마치 한 편의 파노라마 영상처럼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근에는 에너지 넘치는 웨일즈카트도 운행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레일 위를 질주하는 카트가 장생포 여행에 짜릿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1. 고래생태체험관 외벽의 거대한 고래 조형물
2. 울산함이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서있다.
3. 장생포고래박물관에서 고래의 숨소리를 느껴보자.
4. 장생포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고래모노레일.





3



4



1

1. 시원한 바닷바람과 풍광으로 여름 데이트코스로 인기가 높다.
2.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고래문화마을
3. 울산대교가 멀리 보인다.



2

시간이 멈춘 마을, 하늘로 날아오르는 고래

여정의 백미는 고래가 장생포를 풍요롭게 하던 1970~80년대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고래문화마을(장생포 옛마을)이다. 참기름집과 선장집, 추억의 교실이 고스란히 남은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진다. 고래 해체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면, 거대한 고래 한 마리를 두고 온 동네가 들썩이던 그 시절, 장생포 사람들의 활기찬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오래된 추억을 뒤로하고, 마을 언덕 위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자리한 웨일즈스윙으로 향한다. 장생포 앞바다를 향해 활짝
열린 대형 그네에 올라 발을 구르면, 온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며 푸른 바다와 하늘이 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마치 한 마리 고래가 되어 장생포의 푸른 바다 위를
자유로이 날아오르는 듯한 해방감이다.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누구도 멈춰 서지 않는 여행

여행의 설렘에는 자격이 없다. 휠체어를 탄 여행자도, 유아차를 미는 부모도, 걸음이 느려진 어르신도 같은 풍경 앞에서 같은 감동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울산은 이 단순한 명제를 도시 차원의 약속으로 옮겨, 교통부터 관광지와 편의시설, 정보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선정되며 5개 분야 14개 사업이 본격화됐고, 그 변화는 이미 도심과 바다, 강과 마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km 대숲을 휠체어로 태화강국립정원

태화강국립정원 십리대숲은 일찍이 2017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울산 무장애 관광의 상징이다. 강을 따라 4km에 걸쳐 이어지는 대숲길은 전 구간이 평탄한 흙길과 데크로 다듬어져, 휠체어와 유아차도 머뭇거림 없이 숲 깊은 곳까지 닿는다. 휠체어에 앉은 채 두드리는 대나무 실로폰, 누구의 눈높이에도 맞춘 포토존은 '함께 즐긴다'는 감각을 그대로 전한다. 휠체어 두 대가 나란히 오를 수 있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는 너른 정원을 가뿐히 한 바퀴 돌게 해 준다. 바닥이 돌아가는 태화강 전망대에서 시원한 태화강을 느껴보자.

주소: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길 154 전화: 052)229-3147



Taehwa River National Garden

Stretching for 4 kilometers along the river, the bamboo forest path is fully paved with flat dirt paths and wooden decks, allowing wheelchairs and strollers to effortlessly venture deep into the forest.

The barrier-free electric tour tram, which can accommodate two wheelchairs side by side, offers a smooth and easy ride around the expansive garden. Be sure to take in the refreshing views of the Taehwa River from the Taehwagang Observatory, which features a unique revolving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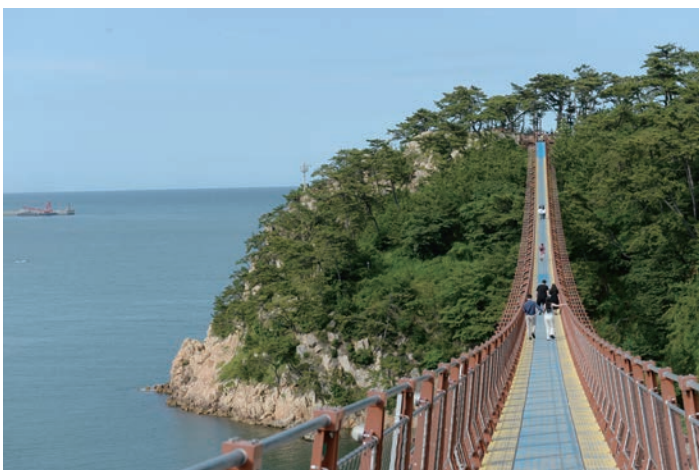


2

바다와 송림을 끝까지 대왕암공원

동구 대왕암공원의 가치는 '경치 좋은 곳까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데 있다. 100여 년 자란 송림 사이로 등대를 지나 대왕암에 이르는 600m 길은 바닥을 평탄하게 고르고 핸드레일과 점자 표지판을 더해, 휠체어 여행자도 바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산책로 위에 새로 들인 휴게 공간에는 투명 강화유리를 깔아, 앉은 자리에서도 발아래 바다를 품는다. 점자 겸용 팸플릿과 음성 해설(오디오 가이드), 촉지 음성 안내판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풍경을 읽게 한다.

주소: 동구 등대로 95 전화: 052)209-3738



Daewangam Park

Winding through a century-old pine forest, the 600-meter path to Daewangam Rock features a leveled surface, handrails, and braille signs, ensuring wheelchair travelers can journey seamlessly to the edge of the sea.

A new rest area features transparent tempered glass flooring, letting visitors view the ocean directly beneath their feet while comfortably seated.

Additionally, braille brochures, audio guides, and tactile-voice signs help visually impaired visitors “read” and fully experience the landscape.



고래의 도시에서 만나는 오감 여행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언덕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던 장생포는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계기로 가장 빠르게 달라지는 현장이다.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에서는 고래 뼈를 직접 만지는 촉각 체험과 점자 해설판, 수어 영상이 전시를 모두에게 열어 두었고, 장생포 옛마을에서는 입고 벗기 편한 옛 교복을 누구나 걸쳐 보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휠체어와 실버카트·유아차 대여, 엘리베이터, 가족화장실과 수유실까지 갖춰 가족 단위 여행자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진다.

주소: 남구 장생포로 244 전화: 052)226-0980



Jangsaengpo Whale Culture Special Zone

Once challenging to navigate due to its hilly terrain, Jangsaengpo is transforming rapidly following its selection for the Open Tourism Site project.

The site also features convenient amenities such as wheelchair, rollator, and stroller rentals, elevators, family restrooms, and nursing rooms, making a day trip much lighter and easier for family travelers.



4 7천 년 전 그림이 주는 감동 반구천의암각화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반구천의 암각화는 고래잡이의 순간을 새긴 선사인의 걸작이다. 울산암각화박물관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휠체어 대여를 갖췄고, 관찰데크 앞 경사로를 통해 실제 암각화 앞까지 휠체어로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도시는 이곳에 무장에 동선과 더불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안내를 더해, 멀고 높은 바위그림을 모두의 눈앞으로 끌어당기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주소: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3 전화: 052)254-5724



Petroglyphs of Banguchen

The Petroglyphs of Banguchen are prehistoric masterpieces that vividly capture the moments of ancient whale hunting.

The Ulsan Petroglyph Museum is fully equipped with accessible elevators, restrooms, and wheelchair rentals. Furthermore, a ramp leading to the observation deck ensures that wheelchair users can smoothly approach the actual petroglyphs.

기차는 떠나고 새벽은 남았다

구역전시장

- 울산역이 사라진 자리에서 백 년 가까이 이어져 온 새벽시장. 구역전시장 이 이제 밤의 얼굴까지 새로 얻었다.
새벽 네 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에 울산 중구 학성동 한쪽이 먼저 눈을 뜬다. 좌판 위로 갓 들어온 채소와 생선이 오르고, 짐을 부린 트럭 사이로 상인들의 인사가 오간다. 백 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새벽 풍경에는 이름 하나가 붙어 있다. 구역전시장, ‘옛 역 앞’이라는 뜻이다.

주소 중구 학성동 일대(도로명 ‘구역전길’) 문의 052)244-1181(상인회 사무실)



사라진 역, 남겨진 이름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이 자리에는 오래전 울산역이 있었다. 울산역은 1921년 성남동에 들어섰다가 1935년 이곳 학성동으로 옮겨 왔고, 1930년대 중반부터는 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따라 그 앞에 장이 섰다. 처음에는 ‘역전시장’으로 불렸다. 1962년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며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던 시절에는, 울산중앙시장과 더불어 도시의 살림을 책임지던 대표적인 시장으로 꼽혔다. 그러다 1992년 울산역이 삼산동(지금의 태화강역 자리)으로 옮겨 가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옛 역 앞 시장’이라는 뜻의 구역전시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역은 떠났지만 이름과 시장은 남았고, 그렇게 백 년 가까운 철도의 기억이 골목마다 스며들었다.

1. 신선한 과일 박스가 가득 쌓인 역전시장의 새벽 풍경.
2. 옛 역 앞 시장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표지판.



새벽 네 시, 도시가 깨어나기 전

구역전시장의 진짜 얼굴은 이른 아침에 있다. 매일 새벽 네 시면 장이 서고, 그때부터 오전 열 시까지는 시장 한복판이 ‘차 없는 거리’로 바뀐다. 그 시간만큼은 차 대신 사람과 좌판이 길을 차지한다. 도소매를 겸하는 365일 상설시장이라, 식당으로 향하는 도매 손님과 장바구니를 든 동네 주민이 같은 골목에서 어깨를 스친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노점과 상점이 고르게 자리 잡은 덕에 빈틈이 없다.

한 지붕 두 살림을 끝내고

오랫동안 이 일대는 아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북쪽 구역전시장과 남쪽 구역전전통시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2024년, 두 시장은 ‘한 지붕 두 살림’을 정리하고 하나로 합쳤다. 이 통합으로 시장 면적은 7,640㎡에서 1만 2,060㎡로 넓어졌다. 달라진 것은 규모만이 아니다. 구역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시장’에 선정됐고, 전국 최초로 ‘재난대응 안전디자인’을 도입해 CCTV와 화재 알람 시설, 조명을 갖췄다. 상인들은 심폐소생술과 소방 훈련을 받았고, 연 네 차례 교육에 이백 명 넘게 참여했다. 스물다섯 곳 점포는 스마트스토어로 온라인 판로까지 열었다. 오래된 새벽시장이 한 해 사이 안팎으로 단단해진 셈이다.





3

1. 아직 동이 다 트지 않은 시간부터 활기가 깃든다.
2. 미소짓는 얼굴의 야구르트 카트.
3.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먹고 있다. 한상에 3천 원 정식.

밤이 되면 열차가 들어온다

2025년, 구역전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하며 2년간 8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밤의 시장이 있다.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에서 이름을 빌린 야시장 '야식열차999'가 백 년 철도의 역사 위로 들어선다. 봄·가을이면 금·토요일 밤마다 '야식열차999'가 불을 밝히고, 토요일 낮에는 '999 토요일터'가 골목을 채운다. 야시장 전용 전통주와 '츄츄팝팝' 같은 특화 먹거리, 옛 철도역과 시장을 재현한 추억의 축제까지 차례로 준비되고 있다. 새벽으로 기억되던 시장이, 이제 밤에도 불을 켜다. 다만 야식열차의 불빛은 한여름과 한겨울엔 잠시 숨을 고른다. 그래도 도시의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새벽만큼은 사철 한결같다. 올여름 울산에서 가장 부지런한 아침이 궁금하다면, 해 뜨기 전 구역전시장으로 향해 보자. 기차는 떠났지만, 이곳의 시간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1. 태화강변에서 아침운동 후에 시장에서 여유를 즐기는 중구 주민.
2. 부지런히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다.
3. 젊은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시장을 찾았다.
4. 좋은 물건은 항상 인기가 많다.

3



4

회야강 생태습지

오직 여름, 단 한 달간 열리는 울산의 비밀 정원

여름이 깊어지면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의 강변에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비밀의 문이 열린다. 계절이 허락한 그 짧은 시간, 유장하게 휘어 도는 강줄기를 따라 물 위로 붉고 흰 연꽃 수만 송이가 피어나고 갈대와 부들이 강바람에 일제히 일렁인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토록 원시적인 정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낯설고 귀하다. 매미 소리와 돌비린내, 바람에 쓸리는 갈대잎 소리가 한데 섞이는 이 길에서는 도시의 속도가 잠시 멈춰 선다. 아는 이만 조용히 찾고 싶은 울산의 '비밀의 정원', 바로 회야강 생태습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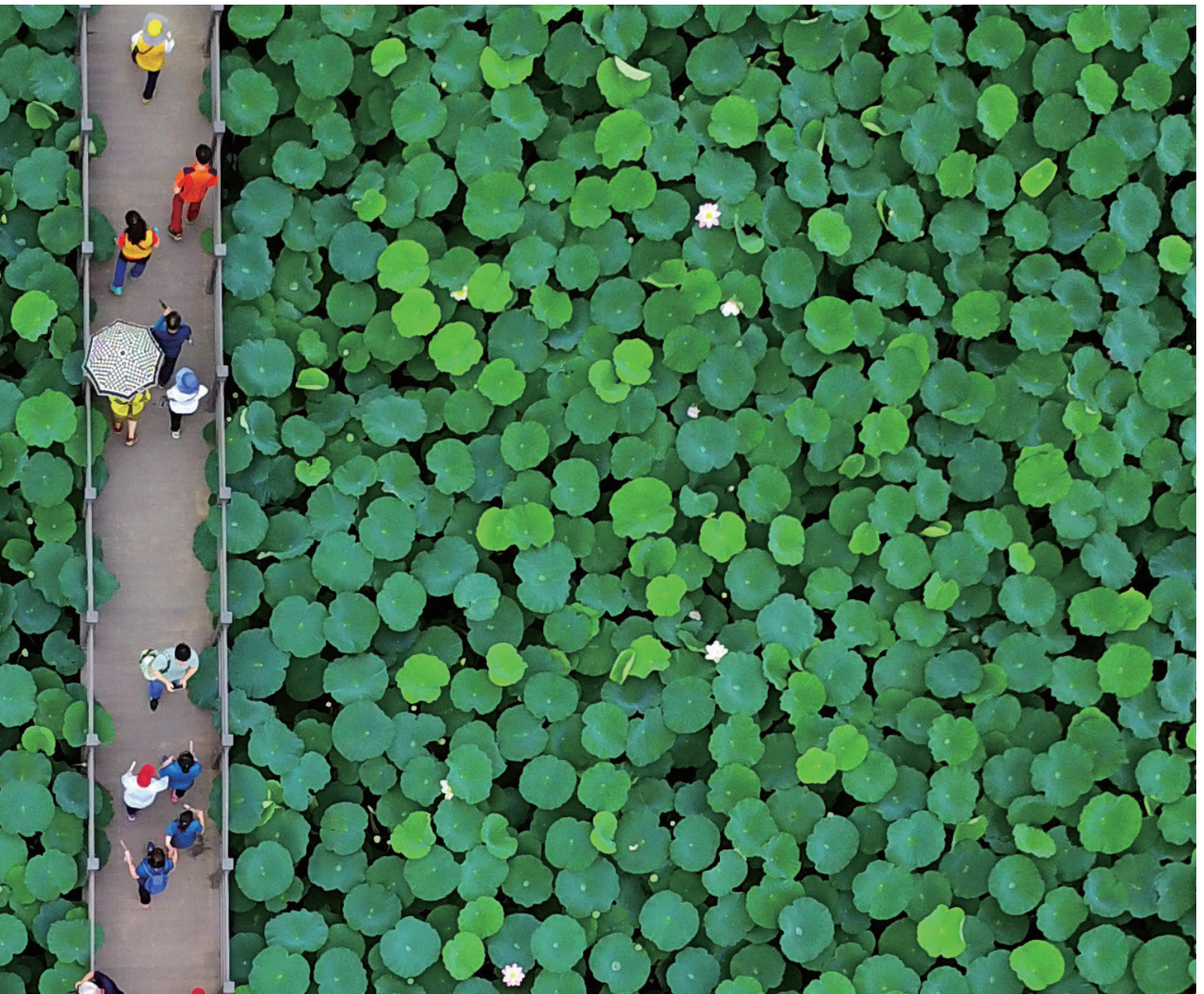
사라진 마을이 남긴 위대한 선물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한 마을의 가슴 아픈 헌신이 깔려 있다. 1982년 회야댐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대대로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통천마을(통새미) 주민 700여 명은 고향 땅을 내주고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주인을 잃고 헛헛해진 논밭에는 오랫동안 잡초만 무성했다. 그 빈 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회야강 상류의 물을 자연의 힘으로 정화하는 친환경 습지를 만들기로 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여섯 해가 지난 2009년,

마침내 약 17만 ㎡에 이르는 거대한 생태습지가 탄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습지가 처음부터 관광이나 구경거리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저 '자연의 회복'이었다. 그 조용한 진심이 오랜 시간과 만나 지금의 경이로운 풍경을 빚어냈다.

통천마을의 옛 기억을 건다

주민들이 떠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탐방로 초입에는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통새미'라 불렸던 옛 우물터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모시떡의 재료가 되는 모시풀, 두부



간수를 만들 때 썼다던 붉나무(소금나무) 등 옛 집터마다
울창하게 자라난 나무와 풀이 마을의 옛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준다.

연꽃이 도시의 물을 맑히는 시간

화야강 생태습지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쓰임'에서 피어난다. 이곳은 울산 시민의 식수를 지키는
거대한 자연 정수기다. 습지에 가득한 연과 갈대, 부들의
즐거는 느릿느릿 흐르는 물의 속도를 늦춰 부유물을
가라앉힌다. 그 정교한 뿌리와 잎은 수많은 미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 물속 오염 물질을 조용히 걸러내고
영양분으로 흡수한다. 수생식물이 제 역할을 다하는 동안
맑아진 화야호의 물은 다시 울산 시민의 깨끗한 식수가 된다.
실제 측정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수질 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최대 46.6%까지 줄었고,
부유물질(SS)은 물론 물속의 질소(T-N)와 인(T-P) 같은
영양염류도 상당 부분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연꽃밭이 사실은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친환경 수질 정화 장치인 셈이다.





사람이 한 발 물러서자 돌아온 생명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사람의 발길을 철저히 막은 끝에, 이곳은 야생 생물의 거대한 낙원이 되었다. 숲에서는 고라니가 뛰놀고 수달이 강을 거슬러 오르며, 여름 습지에는 백로와 왜가리가 한가롭게 먹이를 찾는다.

그동안 태화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회야강의 생태적 가치도 근래 들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고, 5년간 자취를 감췄던 먹황새를 비롯해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 대형 맹금류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 국제적 보호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어새’가 습지에서 다정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세계적 희귀 조류인 ‘흑두루미’까지 이곳을 기착지 삼아 쉬어 간 것이 확인되었다. 겨울에도 먹이가 끊이지 않고 수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덕분에, 이곳은 이제 전 세계 희귀 철새의 안전한 보금자리이자 중요한 기착지로 자리 잡았다.

오직 여름, 단 한 번의 초대장에 응하는 법

보호와 개방이 반드시 충돌하지는 않으며, 절제된 거리 두기가 오히려 더 풍요로운 생태를 키운다는 것을 회야강 생태습지가 보여 준다. 그래서 이곳은 함부로 문을 열어 두는 대신 아끼고, 아무나 맞이하는 대신 자연과 동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딱 한 달 동안만, 그것도 자연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루 선착순 인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길을 연다.

생태해설사와 함께 왕복 3~4km의 푸른 숲길과 탐방로를 걸으며 듣는 생태 이야기.

1m에 육박하는 커다란 연잎 사이를 거닐며, 돌돌 말린 어린잎이 빚어낸 ‘하트 연잎’을 찾아내는 소소한 재미는 덤이다.

막아서 아름다운 곳, 아끼기에 더 귀한 울산의 비밀 정원. 올여름에도 그 신비로운 빛장이 열린다. 짧기에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남을 이 특별한 초대장을 놓치지 말자.

[Tip] 회야강 생태습지 탐방 가이드

탐방 기간: 2026. 7. 21. ~ 8.14.(약 한 달간 운영)

신청 시기: 7.13. 10:00부터 접수 시작(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탐방 인원: 하루 100여 명 제한(오전·오후 분산 운영)

참가 자격: 안전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신청 가능(참가비 무료)

준비물: 운동화, 긴바지 필수(슬리퍼나 샌들, 반바지, 치마 등은 안전상 탐방 제한),

모자·자외선 차단용품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울산시는 지난 6월 12일 정원지원센터에서 '2026년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정원에 관심이 있고 수료 후 정원 관리·봉사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20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하고 3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교육을 진행해 왔다.

교육은 정원의 이해, 정원 수목학 등 총 27회 90시간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 20명에게 이날 수료증이 수여됐다.

울산시는 교육 수료 후에도 시민정원사들이 관내 정원 관리와 정원 행사 참여, 재능기부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77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했다.

2026년 울산광역시 유·무·인·공 영상 공모전

울산시는 울산의 관광명소와 문화, 일상 등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울산광역시 유·무·인·공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상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울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영상 부문을 새롭게 신설해 일반영상과 인공지능(AI)영상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영상 일기(비로그), 따라 하기(패러디),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은 없다. 출품 규격은 30초 이상 3분 이내의 가로형(16:9) 영상이면 된다.

공모 기간은 6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유의사항은 울산시 대표 누리집(도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

울산광역시시장직 인수위원회



민선 9기 울산광역시시장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민선 9기 울산광역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상수도사업본부 4층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상욱 당선인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당선인 인사말,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출범식 직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오문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조직으로 꾸려졌다. 기존의 분과별 대규모 체계를 지양하고 시정 실무와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다.

특히 당선인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김상욱 당선인은 이날 민선 9기 시정 이상(비전)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제시했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 '4년 연속 선정'

울산시가 공간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돼 지역 건물과 도로 지형 등의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전자지도 고도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2027년 국비 연결(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전(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2024년 처음 선정된 이후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공간정보 분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연결(매칭)한 총사업비 28억 원(국비 14억 원, 시비 14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울산 전역(800.75km²)을 대상으로 총 3,203개 지도구역(도엽)에 달하는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최신화하고, 가상모형(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건물·도로·지형 중심의 3차원(3D) 데이터를 고도화한다.



세계시장 선도할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착수

울산시가 잠수함과 해양무인체계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체계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과제 공모에서 '상용 연료전지 스택을 활용한 질소순환형 혼합가스 기반 20kW급 잠수함용 연료전지 체계 개발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6월 10일 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 울산테크노파크 등 6개 참여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주관기관인 케이-퓨얼셀을 비롯해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스웍스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또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이자 최종 개발 결과물을 활용할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상용화와 실증의 완성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체납관리단 출범

울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1일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추진됐다. 울산시는 신속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체납관리단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나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00명 규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간 6,000명 규모로 4년간 총 2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구천의 암각화 담은 '나만의 우표' 나온다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나만의 우표'가 발행된다.

울산시는 남울산우체국과 협업해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한 맞춤형 우표를 제작·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표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남울산우체국이 우표 제작을 맡고, 울산시는 디자인에 활용할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나만의 우표'는 「대한민국 우표규정」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형 우표로, 반구천의 암각화와 관련된 암각화 문양과 사진 등 총 14종의 이미지로 구성됐다.

판매 가격은 전지 1매(영원우표 14매 기준) 1만 800원이다.

구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남울산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680/index.do)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전화, 방문 신청을 통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제25회 울산광역시민대상'후보자 추천·접수

울산시는 6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제25회 울산광역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민대상'은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울산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다.

시상 인원은 총 7명으로 △사회봉사 △효행·선행 △안전·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체육 △학술·과학기술 등 총 7개 부문별 수상자 1명을 선정한다.

추천 대상은 각 부문에서 울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로, 공고일(2026년 6월 19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군수, 각급 기관·단체장은 물론,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식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A디지털배움터 본격 운영

울산시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일상화를 위해 '2026년 A디지털배움터'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거점센터 운영 ▲찾아가는 파견교육 ▲교육버스 운영 등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거점센터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A·디지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체험구역과 상담구역을 운영해키오스크, 드론 헬스케어기기 등 디지털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찾아가는 파견교육은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수요계층이 많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견강사를 통한 교육과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페이, 울산버스 앱, 지갑 없는 주차장 등 A·디지털 공공서비스 안내와 개인정보 보호, 해킹 예방 등 디지털 침해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교육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www.디지털배움터.kr 또는 콜센터(☎1800-009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6년 수도물 품질보고서' 발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수도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수도법」 31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수도물 생산 과정과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품질보고서에는 상수도 기본 현황,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도물 생산 공급 과정 등 시민들이 수도물에 대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가 담겼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청, 구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품질보고서 요약본을 배부했다.

시민들은 납부고지서나 요약본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등록된 보고서를 쉽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대구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은 감염 초기 발열과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과 경련,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예방을 위해 야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며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것과 방충망 정비와 모기장 사용, 집 주변 고인물 제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일본뇌염 위험지역 거주자나 위험국가 여행 예정자는 의료기관과 상담 후 예방접종(유료)을 받는 것을 권고했다.

울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체불 관행 사라졌다

울산시 내 주요 대형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던 불법 하도급과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관행이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로 집계돼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과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역업체의 대형·핵심 공종 수행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계설비와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울산과 함께하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선정된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김○경 울산광역시 남구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울산 시민의 식탁을 책임져 온
신정상가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켜켜이 쌓인 삶의 현장이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살아 숨 쉬는 이곳이 앞으로도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정○서 대구광역시 북구

문수야구장을 찾았을 때 울산 시민과 선수들의 오랜 기다림이
함성으로 축포를 터트리며 열띤 응원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된
순간의 그 짜릿함이 떠올랐습니다. 울산 웨일즈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조○주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도서관에서 우연히 야구표지를 보고 울산소식지를 읽게
되었는데, 울산에 이렇게 다양한 시설과 재미있는 장소가
있는 곳인지 새삼 다시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하여
좋은 정보를 알게되면 저희 가족과 가보고 싶어요!



김○옥 울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친화도시의 위엄”을 통해 울산의 반려동물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노력을 알게 되었고,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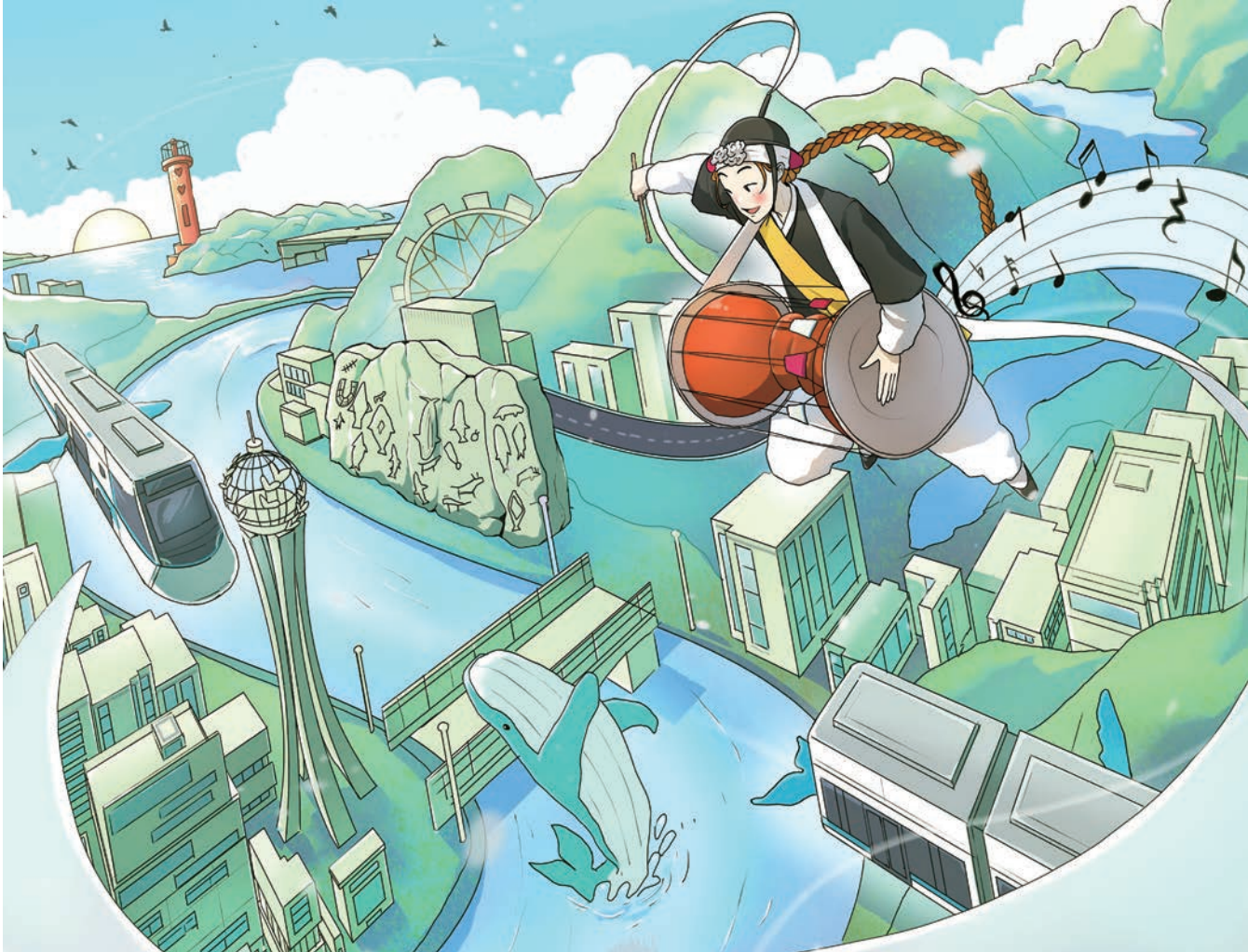
이○숙 울산광역시 중구

우리울산의 지면에서 여러 반가운 소식을 만나서 기쁘다.
울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무대... 국비 공모 공연 확정 제목이
큰 글자가 되어 눈에 쏙 들어왔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2026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수 공연을 우리 울산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만큼 더 기쁜 일이 있을까. 6월, 8월, 9월
공연 일정에 넣어두고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전○홍 경기도 의정부시

반백년 울산의 맛과 멋을 품다. 신정시장편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고 정과 행복이 철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조만간 꼭 웃음이 넘치는 신정시장을
찾아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렵니다.
다음호는 벌써 여름호네요. 울산지역의 숨어있는 피서지 살짝
소개해주세요.

울산, 꿈을 그리다.



울산의 자연과 문화, 미래를 한 장면에 담았다.
태화강과 고래, 대왕암공원, 트램, 처용무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울산의 매력을 표현한 작품이다.



김서영 애니원고등학교 2년

어릴 때부터 그림에 대한 꿈을 키우는 학생으로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기다립니다.

<우리울산>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채택되신 분께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함께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가능 작품: 시, 수필, 편지, 사진, 그림 만화 등



울산사랑퀴즈

옛 고래잡이 마을로 이름난 ‘○○○’는 바다와 문화, 짜릿한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멋지게 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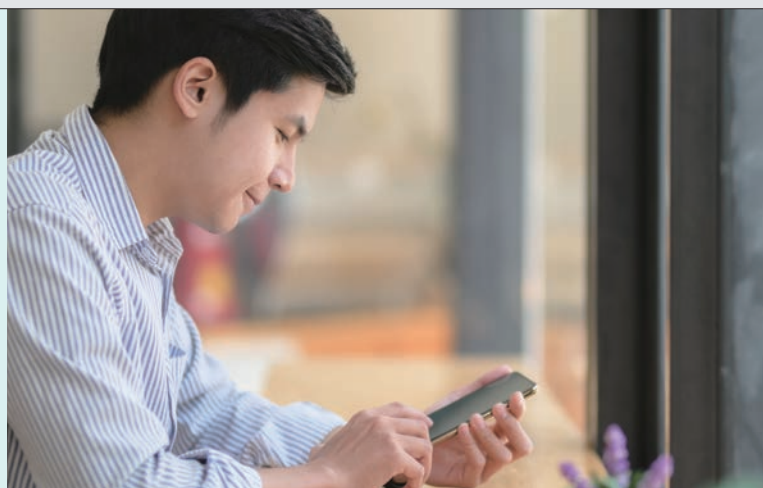
※ 16페이지 참고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 원)을 드립니다.



구독 신청하세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다채로운 소식과 정보가 담겨 있는
울산광역시 소식지 ‘우리울산’.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후기를 보내주세요.
〈우리울산〉에 실어 드립니다!

‘우리울산’을 읽고 독자 후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알찬 ‘우리울산’이
만들어집니다.

울산광역시 시정소식지

우리울산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편리하게
구독 신청 | 퀴즈 이벤트 | 독자 후기에 참여하세요.

8월 25일 마감 문의: 052)227-1400

민선9기 울산광역시 출범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